

성녀 줄리 비야르의 시성 기념일



1969 년에 있었던 성녀 줄리 비야르의 시성의 기억이 2019 년 6 월 22 일 온종일 모원에서 살아있었습니다. 흥겨운 전례 중에는 영성체 숙고로써 영어 연수 학생들이 “줄리 시편”을 노래했습니다. 저녁 기도는 줄리의 정신이 그리스도 성체의 장엄함과 합쳐졌습니다.

하루 동안의 식사도 아침에는 프랑스 식 이태리 패스츄리를, 점심 식사는 한국 수녀들의 불고기와 김밥, 저녁에는 피자, 샐러드와 아이스크림으로 우리 국제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.

성 베드로 성당에서 있었던 1969 년 전례 사진들도 게시판을 빛냈고, 1969 년 발행된 여러 부의 차임지도 50 년 전 로마와 전세계에서 수녀들이 즐겼던 많은 경축을 다시금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. 저녁에 12 분 길이의 영상을 감상할 때는 우리 중 많은 수가 성 베드로의 군중 속에서 출신 관구 수녀들을 알아 보았습니다. “활동 중의 황홀경” 조각상으로 우리는 십자가라는 특징을 지닌 우리 수녀회 안에서 줄리의 소명과 사명에 참여해야 함을 재차 떠올렸습니다.